

4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함께 어울리며 성장하는 유아의 놀이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친구와 함께 놀기 시작하는 유아기

“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까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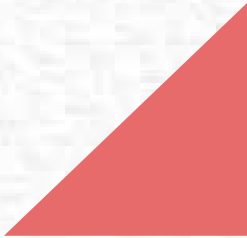


지유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까요?



함께 어울리며 자라는 아이들의 이야기

-지유의 이야기편-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진짜 좋아!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



처음엔 친구랑 같이 놀고 싶어도
어떻게 놀자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옆에서 보기만 했었지.



친구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고 내 말도 들어줬어.

그래서 나도 그 친구가 집 짓는 걸 도와줬지.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었어!

아이들은 어울림을 배우는 과정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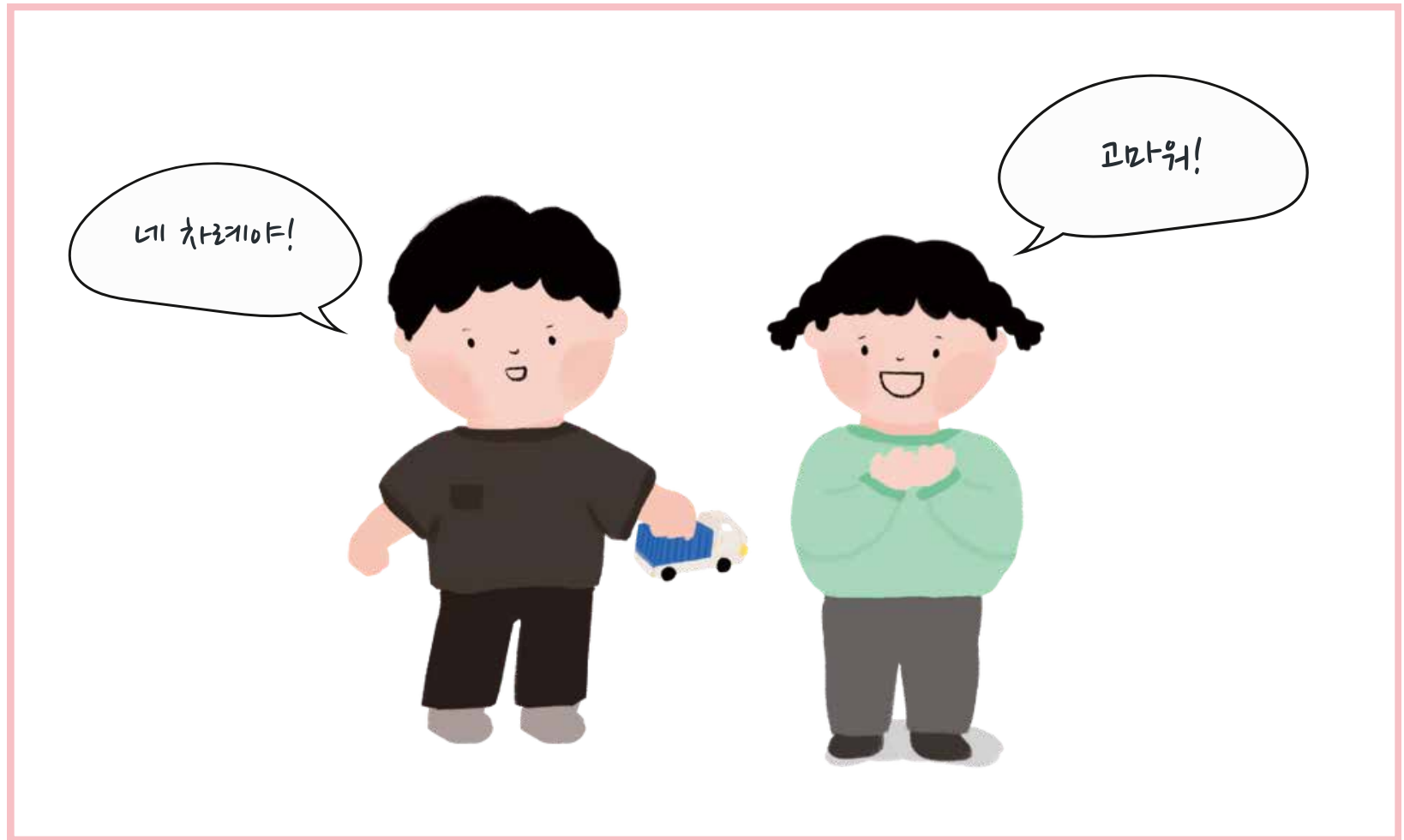
말 걸기

기다리기



거절 경험을

자연스럽게 겪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트럭을 친구가 먼저 쓰고 있었어.

처음엔 나도 먼저 쓰고 싶었지만... 기다리기로 했어.

친구가 “이제 네 차례야!” 하고 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

그리고 나도 다음에 친구에게 빌려줬어!

아이는 기다림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함께 지키는 규칙’
사이에서 균형을 익힙니다.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이야.

친구들이 놀고 있었고, 나도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

근데 뭐라고 이야기 할지 모르겠더라고...

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지.



그러다 친구가 내게 다가와...

“같이 터널 만들자!”라고 말했어.

와! 너무 신났어.

길이 막히면 서로 도와가며 터널을 만들었지.



내가 먼저 “같이 놀자!”고 말한 적도 있었어.

그런데 친구가 “싫어, 지금은 우리끼리 놀고 있어.”라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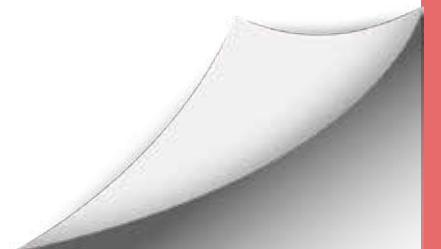
그 말에 기분이 좀 울적했는데...

조금 뒤에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나랑 놀래?”라고 말해줬어!

그 말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어.

놀이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친구가 내 모래 산을 실수로 무너뜨렸어. 속상했어.

그때 친구가 “미안해”라고 말했어.

나도 “괜찮아!”라고 말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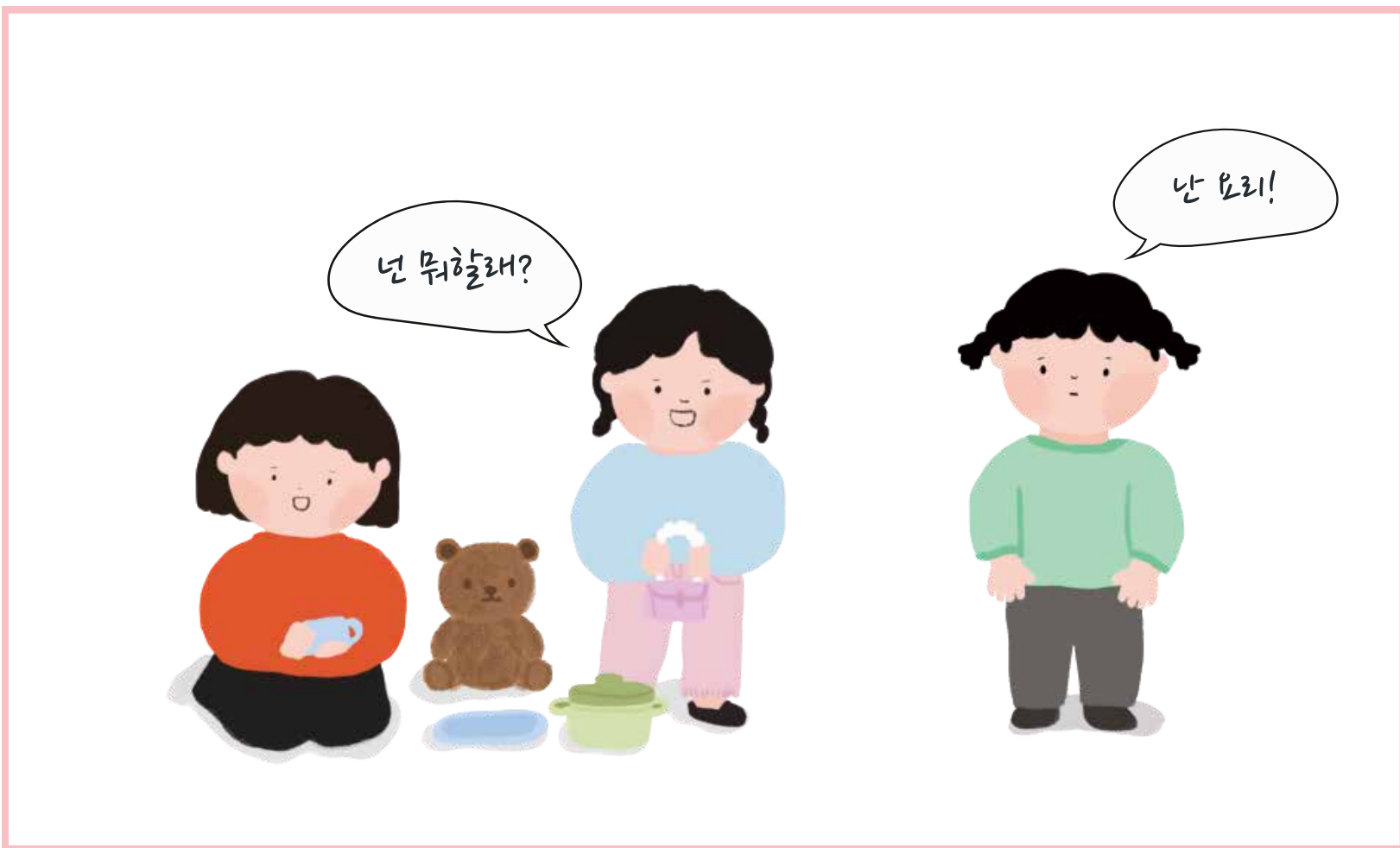
우리 둘은 함께 다시 모래성을 만들었어.

아까보다 더 멋진 성이 되었어!

갈등도 아이가 관계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용서하기’와
‘다시 시작하기’는
함께 자라는 과정입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도 가족 놀이를 같이 하고 싶었지.

그런데 먼저 말하는 게 좀 어려웠어.

그때, 친구가 먼저 물어봤어. “넌 뭐 할래?”

나는 말했어. “나도 요리할래!”

그래서 나는 국을 끓이고, 친구는 밥을 했지.

상도 같이 차렸는데, 인형이 넘어져서 우리 둘 다 깔깔 웃었어!

그리고 말했지. “우리 또 같이 놀자!”



초대 받기,

역할 나누기,



감정 공유는

놀이를 통해 배우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역할을 맡아야 했어.

친구도 나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했지!

친구가 엄마, 나는 요리사를하기로 했어.

가위바위보로 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니까 더 잘 놀 수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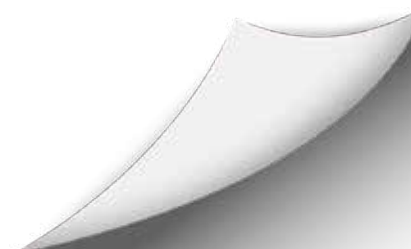
다음에는 친구가 요리사, 내가 엄마를하기로 정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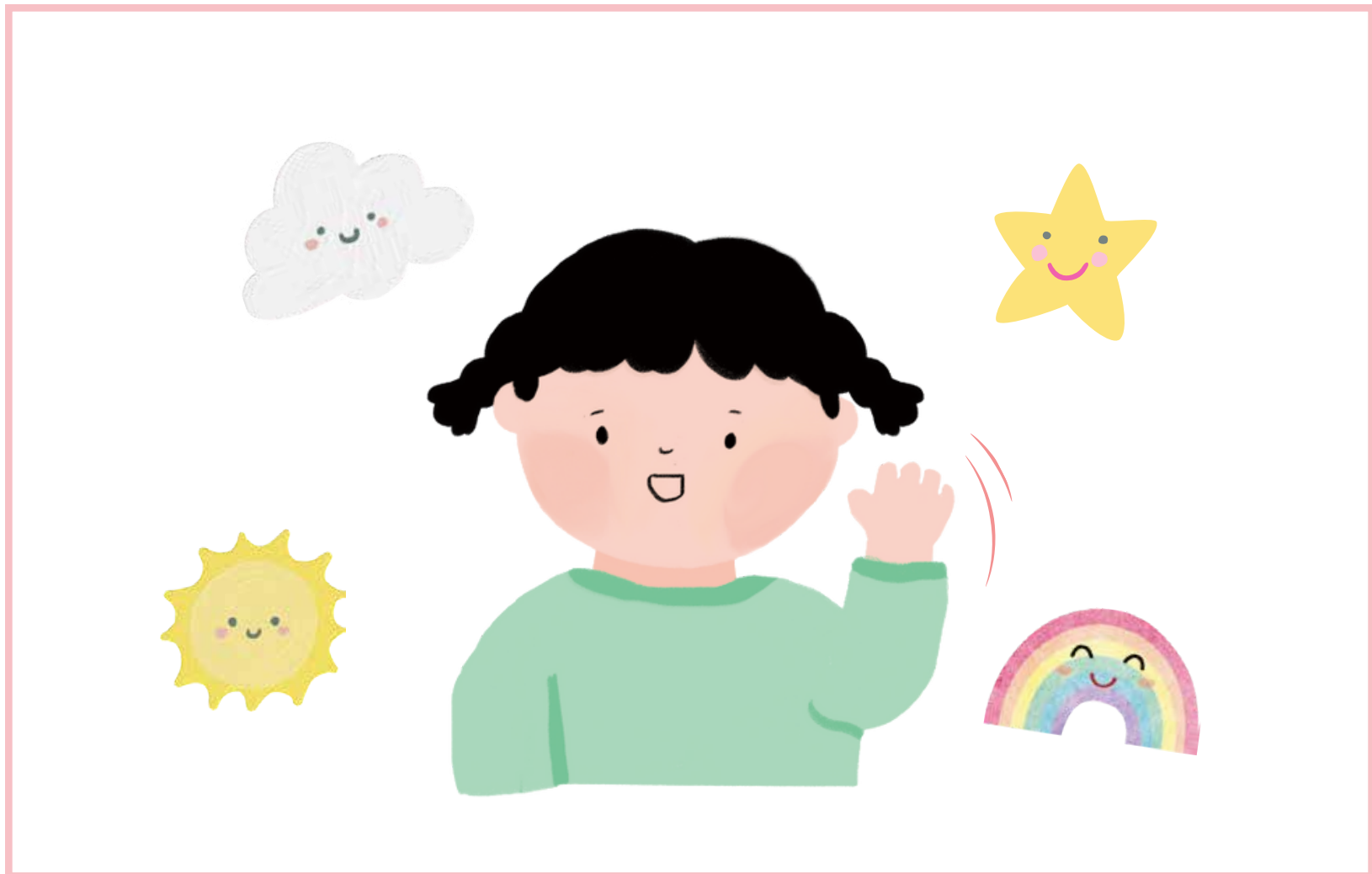
“

이 시기 아이들은 갈등 속에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힘을
기릅니다.

”





친구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처음에는 조금 어렵지만...

용기 내면 점점 더 재미있어져!

유아의 놀이에는...

관계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많은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자라고, 
관계가 피어나는 순간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유의 이야기 속
순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이들의 놀이 속에 나타난 관계 맺기와 사회의 이해



첫 번째 순간

<친구랑>



관거기 맺기는 기다림과 용기를 필요로 해요.

처음에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도 어려워요.



어떻게 말을 걸지,

언제 끼어들지 고민하죠.



아이는 놀이 속에서 이 모든 방법을 익혀요.



두 번째 순간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순간,
아이는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해요.





세 번째 순간



아이는 놀잇감을 갖고 싶은 마음과
친구를 배려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해요.
그 순간,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 자라나요.





네 번째 순간



협력은 함께 목표를 이루는 경험이에요.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며
아이는 **협동**을 배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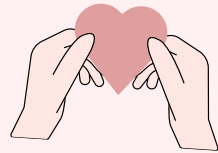


다섯 번째 순간

<친구의 실수>



갈등도 함께 자라는 과정이에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에요.
작은 다툼과 실수, 
그리고 사과하고 마음을 푸는 경험을 통해
아이는 관계를 회복하는 힘을 키워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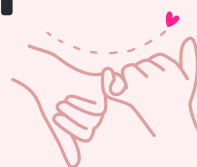
여섯 번째 순간

<역할놀이>



타인과 생각을 **조율**하고, **규칙**을 만들고 지켜요.

역할놀이에서는 ‘하고 싶은 것’과
‘지켜야 하는 약속’이 충돌해요.



아이들은 가위바위보, 순서 정하기 등
아이들만의 간단한 방법을 통해

타협하고 규칙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요.

어린이들은 놀이 속에서

관계 맺기,

감정 조절,

협력,

규칙,

갈등 조절...

모두 경험해요.

어른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배우는 순간이에요.

“

사회 정서는 문제집이나 학습지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겪고 느끼며
‘**몸으로 배우는 경험**’입니다.

”

지유는 친구와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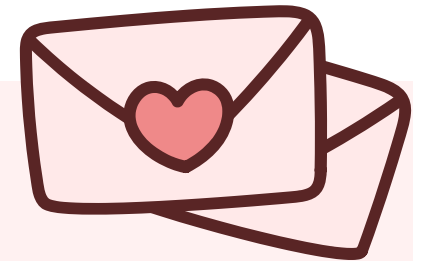


나는 친구랑 놀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됐어.

엄마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책에서 본 것도 아니야.

놀면서 느낀 거야!



함께 놀며 배우는 아이들,
놀이 속에서 자라는 사회성.

아이들이 관계를 익혀가는
소중한 과정을

부모님께서도 따뜻하게 지켜봐 주세요.☆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